

경제와 노후생활

■ 경제

- 동 향 : 국제유가, 유로존 경기침체 및 원유수급 불균형 우려로 급락
- 이 슈 : (경제)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와 시사점
(산업)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키운다

■ 노후생활

- 테 마 : 고령층 가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 세 심 록 : 느슨한 대가족
- 북 리 뷰 : 리더가 사라진 세계

□ 동향

○ 국제유가, 유로존 경기침체 가능성과 원유수급 불균형 우려로 급락

- IMF의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번째 침체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40% 정도로 언급
 -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8월 산업생산이 공장 주문에 이어 2009년 이후 월간 단위 가장 큰 낙폭 기록
 - 2015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1.3%로 낮게 전망하고,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7%로 하향 조정
- WTI유가는 유로존 發 경기둔화 우려와 IEA의 원유수요 전망치 하향조정, 그리고 OPEC 감산 가능성 희박 소식 등으로 배럴당 81달러까지 급락

○ 10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¹⁾는 105로 전월대비 2p 하락

- 향후경기전망 및 취업기회전망은 전월대비 6p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큰 폭 하락
 - (가계의 재정상황)수입과 지출전망은 100이상으로 낙관적이나 전월대비 하락(현재생활형편CSI(91, 2p ↓), 생활형편전망CSI(99, 1p ↓), 가계수입전망CSI(101, 1p ↓), 소비지출전망CSI(109, 1p ↓)
 - (가계의 경제상황)모두 100이하로 부정적이며, 금리수준전망CSI만 전월대비 상승(현재경기판단CSI(79, 4p ↓), 향후경기전망CSI(91, 6p ↓), 취업기회전망CSI(88, 6p ↓), 금리수준전망CSI(90, 1p ↑))
 - (가계저축 및 가계부채)현재가계부채를 제외하고 100이하로 비관적이며, 전기대비 하락함(현재가계저축CSI(88, 1p ↓), 가계저축전망CSI(93, 2p ↓), 현재가계부채CSI(105, 0p), 가계부채전망CSI(99, 2p ↓))
 - (가계의 물가전망)물가전망은 모두 100이상으로 낙관적(물가수준전망CSI(135, 2p ↓), 주택가격전망CSI(124, 0p), 임금수준전망CSI(117, 1p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2/4	3/4	7월	8월	9월	10/17	10/31	
실물지표	GDP성장률(%)	2.3	3.0	1.1	0.9	0.6	0.9	-	-	-		
	제조업생산지수(%)	0.7	-1.6	0.1	1.8	0.3	-	4.0	-2.7	-		
	소비자물가지수(%)	2.2	1.3	1.4	1.1	1.6	1.4	1.6	1.4	1.1		-
	실업률(%)	3.2	3.1	3.0	2.8	3.7	3.3	3.4	3.3	3.2		
	경상수지(억달러)	508.4	798.8	237.8	248.4	241.3	226.6	78	73	76		
금융지표	국고채(3년)(%)	3.13	2.79	3.01	2.90	2.82	2.50	2.56	2.54	2.41	2.27	2.18
	원/달러(원)	1,126.8	1,095.0	1,112.2	1,062.1	1,029.6	1,026.2	1,019.4	1,025.4	1,033.2	1,066.5	1,054.6
	코스피지수(P)	1,930.4	1,960.5	1,917.7	2,009.3	1,993.2	2,041.9	1,995.1	2,060.9	2,042.7	1,938.8	1,949.9

주 :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10/19~31의 평균값임.

1) 소비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 이슈 : (경제)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와 시사점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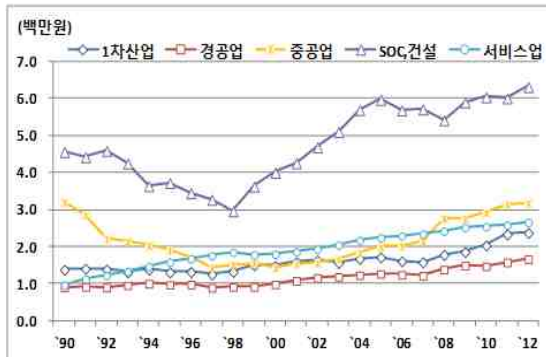
○ 개요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노동생산성도 크게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생산성 격차로 인한 통일비용 확대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남북경협을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개성공단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약 1,050만원 수준(2006~2012년 평균 1,080만원)으로 북한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 사례를 볼 때 남북경협 활성화는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통일비용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하고, 북한 경제성장과 통일비용 절감차원에서 북한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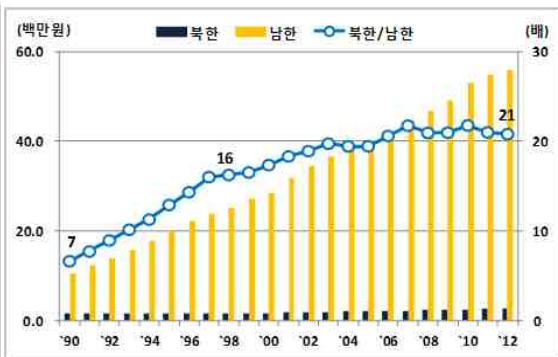
○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1인당 노동생산성을 추정하기 위해 불변 국민소득과 산업별 취업자 통계를 이용하였다. 북한의 노동생산성 추정 결과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 160만원(한국 원)을 기록한 이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정체 상태가 지속되어 지난 22년 간(1990~2012년) 110만원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별로는 2012년 기준 SOC·건설 부문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산업은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 결과 2012년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약 270만원으로 남한의 1980년 수준과 유사하다. 1990년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남한 대비 1/7 수준이었으나, 1998년에는 1/16 수준으로, 2012년에는 1/21 수준까지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북한의 SOC·건설은 남한 대비 1/7 수준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제조업의 경우 남한 대비 1/38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 북한의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추이 >



< 남북한 1인당 노동생산성 추이 >



2)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와 시사점” 14-42호 (2014. 10. 24) 재구성.

○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 추정

북한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재 투입(설비투자 등) 규모를 증가시키는 한편 인적 자본의 육성이 중요하다. 특히 자본재 투입에 비해 인적자본 육성에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통일 이전 북한 인적자본 육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 추정은 과거 남한 정부의 교육비(공교육비+직업훈련 교육비) 지출 경로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현재 북한 인구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추정했다. 또한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은 단계별로 1인당 GDP 5,000달러와 10,000달러 달성을 가정했다. 과거 남한의 인적자본육성비용은 1988년 1인당 GDP 5,000달러 달성까지 약 28조원, 1995년 1인당 GDP 10,000달러 달성까지 약 70조원의 인적자본육성비가 소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을 추정한 결과 1인당 GDP 5,000달러 제고를 위해선 향후 9년 간 약 55조원(연평균 약 6.0조원, 1인당 220만원)이, 추가로 1인당 GDP 10,000달러 달성까지는 이후 7년 간 약 85조원(연평균 약 12.0조원, 1인당 3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남한의 인적자본육성비용 지출 현황 >



<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비용 >

(단위 : 남한 십억원)

구분	소요기간	북한 노동생산성 제고 비용
1인당 GDP 5,000달러 수준 제고	· 9년 (2015-2023)	· 약 55조원 소요 · 연평균 약 6.0조원 · 1인당 220만원
1인당 GDP 10,000달러 수준 제고	· 7년 (2024-2030)	· 약 85조원 소요 · 연평균 약 12.0조원 · 1인당 340만원

○ 시사점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1980년 수준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북한 인력은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에 대한 빠른 이해 및 습득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험 활성화를 통한 북한 경제 발전 지원, 교육 교류 사업 확대, 다자간 협력 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 등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잠재력이 높은 북한 인적자본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고 미래 통일비용의 축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남북경협 확대를 통해 북한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여 북한의 노동생산성 제고 토대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북한의 경제 회생은 노동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향후 통일을 대비한 통일비용 감소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둘째, 통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대북 산업 기술 및 교육 교류 사업을 확대 추진 노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 등 협력 사업구 내 직업학교 설립 및 기술 교육 활성화로 북한 인력의 질적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다자간 협력 확대를 통한 북한 인력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모해야 한다. 남북 협력뿐 아니라 통일 대비 북한 인력의 질적 수준 고취를 위해 남·북·중·러 등 다자간 협력 확대를 통한 북한 노동자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용화 선임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 이슈 : (산업)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키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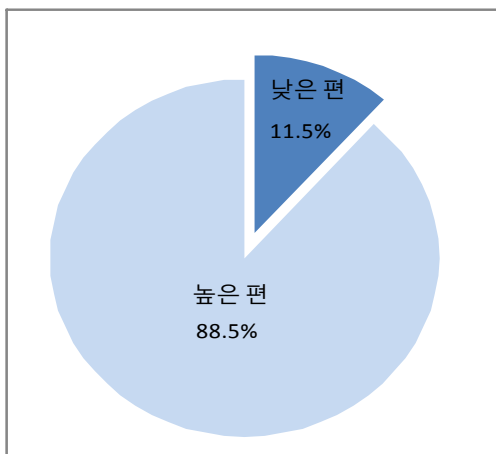
○ 부정부패 방지의 필요성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부정부패 수준을 OECD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면, GDP를 0.65%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결국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부정부패 방지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 토대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정부패 인식 수준과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부정부패 방지 방안 수립의 방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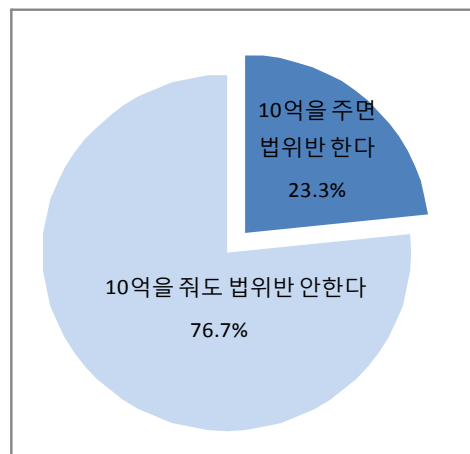
○ 부정부패 관련 인식 조사 결과

(부정부패 인식) 첫째,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수준이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8.5% 이다. 특히, 20대의 경우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부정부패 수준에 대한 전망도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 45.0%,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 29.2% 등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 4명 중 1명은 10억을 주면 법위반도 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현금 10억이 큰 돈인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댓가가 제공된다면 법위반도 하겠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지하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수준>



<10억을 주면 법 위반도 한다>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7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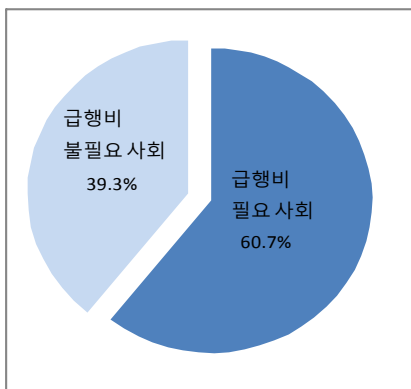
(부정부패에 대한 기준 및 인식 수준) 첫째, 국민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를 찾아주고 음료수를 얻어 먹은 경찰에 대해 음료수 정도는 괜찮다고 응답한 사람이 95.8%로 대부분이다. 핀란드의 경우 같은 상황에서 음료수를 먹은 경찰이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지인에게 저금리도 대출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39.5%만이 공직에서

3)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키운다” 14-38호 (2014. 10. 29.)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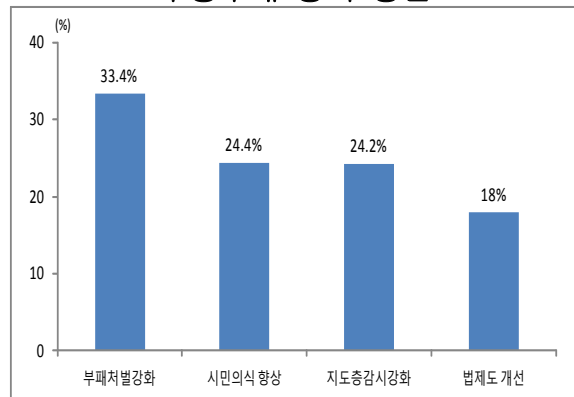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독일의 경우 대통령이 비슷한 사안으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퇴하였다. 둘째,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편법은 필요약(65.8%)이며, 업무처리시 급행비가 필요(60.7%)하다고 생각한다. 깨진유리창이론에 따르면, 사소한 편법이라도 방치하면 좀 더 큰 부정부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런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 만연의 한 이유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과반수 정도(47.8%)는 친구나 친척의 비위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의한 비도덕적 행위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10명 중 4명 이상(42.6%)이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면 오히려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규정 준수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정 준수를 융통성이 없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40%를 넘는다는 사실 역시 부정부패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부패 방지 방안) 첫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국민들은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가장 선호(33.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시민의식 향상'이 24.4%, '사회지도층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가 24.2%,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이 18.0%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정부패에 단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 모두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부패에 엄격하려고 노력한다고 인식하는 사람(41.5%)들도 많은 편이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엄격하다는 사람(20.7%) 등을 포함하여 이들을 부정부패 방지 의식 개선을 위한 선도자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업무 처리 시 급행비 필요>



<부정부패 방지 방안>



○ 시사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상황이 다른 선진국 수준의 엄격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만의 부정부패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가 역시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단호한 처벌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들이 스스로 단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장후석 연구위원(2072-6234, chahus@hri.co.kr)

□ 테마 : 고령층 가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 요약

고령층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가정 내에서 가사활동을 유지하며 생산적 활동으로 노후생활을 보내게 됨. 고령층의 39.3%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89.3%가 가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고령층의 성별에 따라 생산적 활동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노동시장 참여율은 남성이 높고(남성 49.5%, 여성 32.7%) 가사활동 참여율은 여성이 높음(남성 77.4%, 여성 96.9%). 고령층이 가사활동을 수행하는 시간은 일평균 2시간 32분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시간을 가사활동으로 보내고 있음.

고령층의 가사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면, 연간 19.0~31.9조 원으로 GDP 대비 2.3~3.9%의 비중을 차지함. 향후 고령층의 인구 증가 및 건강수준 향상으로 고령층의 생산적 활동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고령층의 가정 내 생산적 활동은 고령화시대 사회적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 경제규모와 가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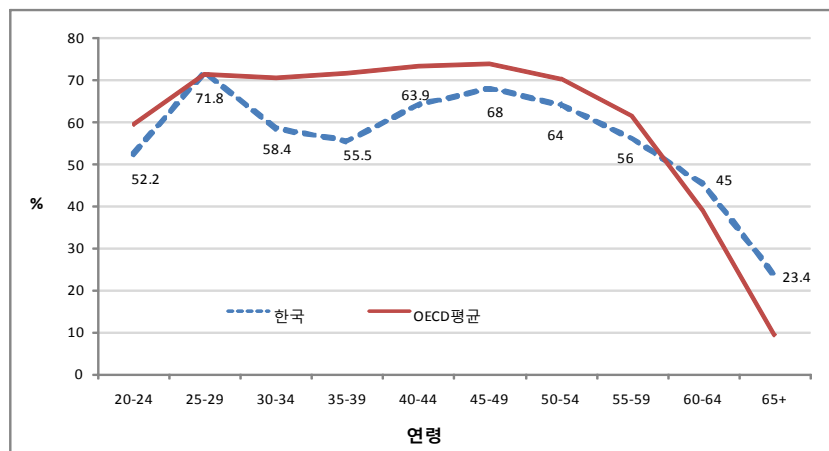
○ 모든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의 생산 및 소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음

- 가구 단위에서는 가계부 작성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파악하는 있는 것처럼, 국가 단위에서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이라는 국제적인 표준방법론을 따름
 - 국민계정은 소득, 소비, 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통계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것이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분기별 및 연도별로 국민계정을 발표하고 있음
 - 국민계정을 통해 주요 거시지표인 경제성장률 등이 측정됨
- 따라서 국민계정은 한 국가의 경제수준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나아졌는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하지만 국민계정은 한 국가의 경제수준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없음

- 전업주부가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가사활동(unpaid household work)은 가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지만, 화폐가치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계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가사활동은 임금을 받지 않고 수행하는 모든 생산적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크게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로 구분됨
 - 가정관리(Household care)는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집관리, 가정경영 등이며, 가족보살피기(Family care)는 자녀 및 배우자, 부모 등을 돌보는 것, 참여 및 봉사 (Participation and volunteering)는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 봉사활동 등임
-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비율이 OECD 가입국에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사활동을 포함한 실제 경제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



자료 : <http://stats.oecd.org/>에서 2014.10.8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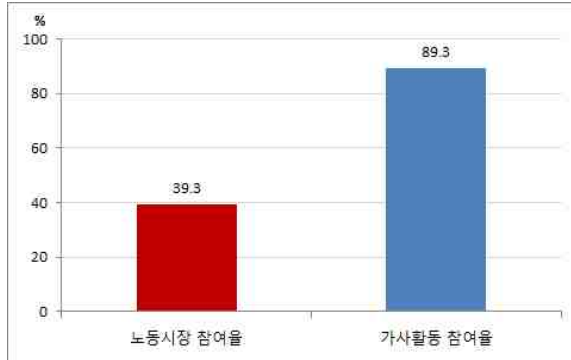
□ 고령층의 가사활동 참여현황

○ 고령층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가정 내에서 가사활동을 유지하며 생산적 활동으로 노후생활을 보내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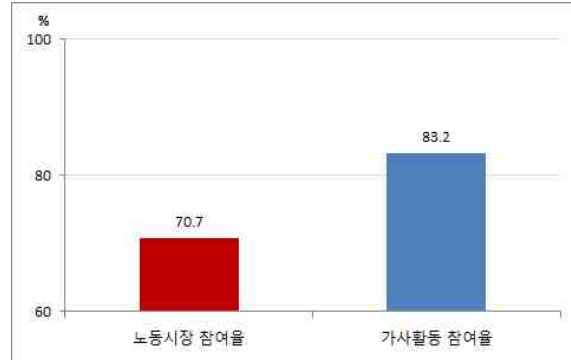
- 고령층의 일부는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생산활동을 지속하지만, 상당수의 고령층은 가정 내에서 가정관리 또는 비공식적 돌봄활동, 자원봉사 등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39.3%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89.3%가 가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즉, 고령층의 10.7%를 제외하고 가정 내에서 가사활동을 수행함

-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청·장년층과 비교하여 1/2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가사 활동 참여율은 오히려 약 6% 높은 것임

< 고령층의 가사활동 참여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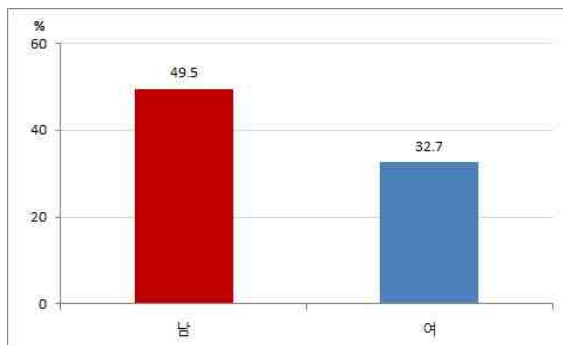
< 청·장년층의 가사활동 참여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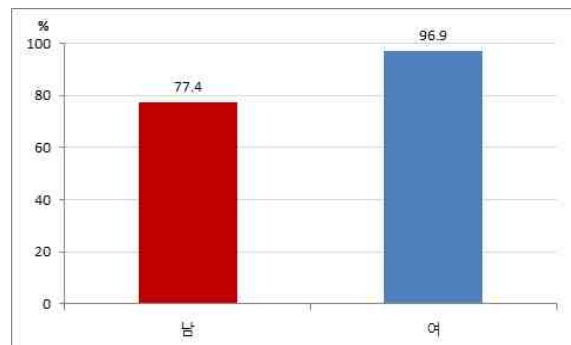
- 성별에 따라 고령층의 생산적 활동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여성의 가사 활동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편임

-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생산활동은 좁은 의미의 생산적 활동이며, 여기에 가정 내에서 수행되는 사회적 생산활동을 포함하면 넓은 의미의 생산적 활동이 됨
- 남성 고령층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편이며, 여성 고령층은 가사활동 참여율이 높음
 - 노동시장 참여율이 남성 49.5%, 여성 32.7%이며, 가사활동 참여율은 남성 77.4%, 여성 96.9%임

<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 >



< 고령층의 가사활동 참여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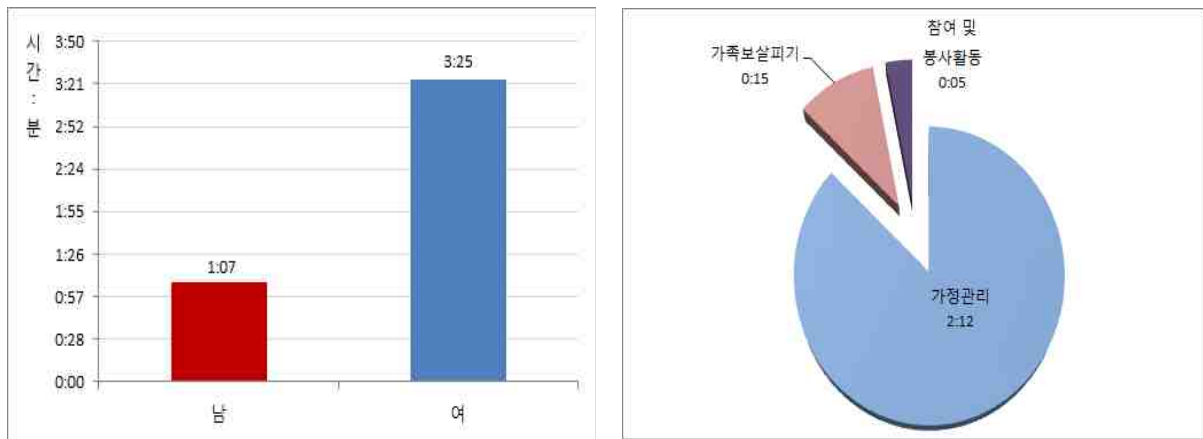


- 고령층이 가사활동을 수행하는 시간은 일평균 2시간 32분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시간을 가사활동으로 보내고 있음

- 여성의 가사활동 시간은 일평균 3시간 25분이며, 남성은 1시간 7분임

- 가사활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정관리 2시간 12분, 가족보살피기 15분, 참여 및 봉사활동 5분으로 가정관리가 대부분을 차지함
 - 성별에 따른 차이 또한 가정관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여성 3시간 3분, 남성 51분임
 - 가족보살피기는 여성 17분, 남성 12분이며, 참여 및 봉사활동은 각각 5분과 4분임
- 청·장년층의 가사활동 참여시간은 고령층 보다 약 15분 정도 적은 1시간 45분임

< 고령층의 가사활동 참여시간 >



주 : 일평균시간으로 해당 집단 전체가 가사활동에 수행하는 총시간을 인구 수로 나누어 계산함.

-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층의 가사활동 수행시간이 일평균 2시간 2분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고령층의 2시간 51분에 비해, 약 50분 작음
 -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며, 노동시장 참여 남성 및 여성은 각각 50분과 3시간 11분임
 -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남성은 1시간 24분, 여성은 3시간 33분임
 - 즉, 고령층의 가사활동 참여시간은 24시간이라는 시간 제약 하에서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참여유무 보다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반면에 청·장년층은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차이가 큰 것을 확인되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는 1시간 45분인데 반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4시간 44분으로 약 3배 이상 많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가사활동 참여시간은 고령층과 청·장년층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45분, 참여하지 않는 경우 1시간 26분임
 - 청·장년층 여성은 노동시장 참여유무별 가사활동 참여시간의 격차가 확대되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3시간 3분, 참여하지 않는 경우 5시간 52분임

< 노동시장 참여유무별 가사활동 참여시간 >

구분	전체		남		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청·장년층	1:45	4:44	0:45	1:26	3:03	5:52
고령층	2:02	2:51	0:50	1:24	3:11	3:33

주 : 일평균시간으로 해당 연령층 전체가 가사활동에 수행하는 총시간을 인구 수로 나누어 계산함.

□ 고령층의 가사활동 참여규모

○ 고령층의 가사활동은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로 환산 가능함

- 가사활동을 화폐적 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은 가사활동 참여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것임
- 시간당 임금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고령층 가사활동의 경제규모 추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기회비용법과 전문가대체비용법임
 -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은 가사활동 총 수행시간에 노동시장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출함
 - 전문가대체비용법(specialist replacement cost method)은 가사활동 세부활동별로 특성에 가장 적합한 노동시장의 임금을 활용함
-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데 절대적으로 우수한 방법은 없음
 - 미국,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등에서는 전문가대체비용법을 활용하여 가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기회비용법이 전문가대체비용법에 비해 경제적 가치 규모가 크게 산출됨

○ 고령층의 가사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면, 남성은 1인당 연간 199~342만원이며 여성은 626~1,045만원임

- 고령층 전체의 연간 가사활동 참여규모는 남성 3.2~5.6조 원, 여성 15.7~26.3조 원임
 - 기회비용법에 의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전문가대체비용법과 비교하여 약 1.7배 큰 규모임

< 고령층 가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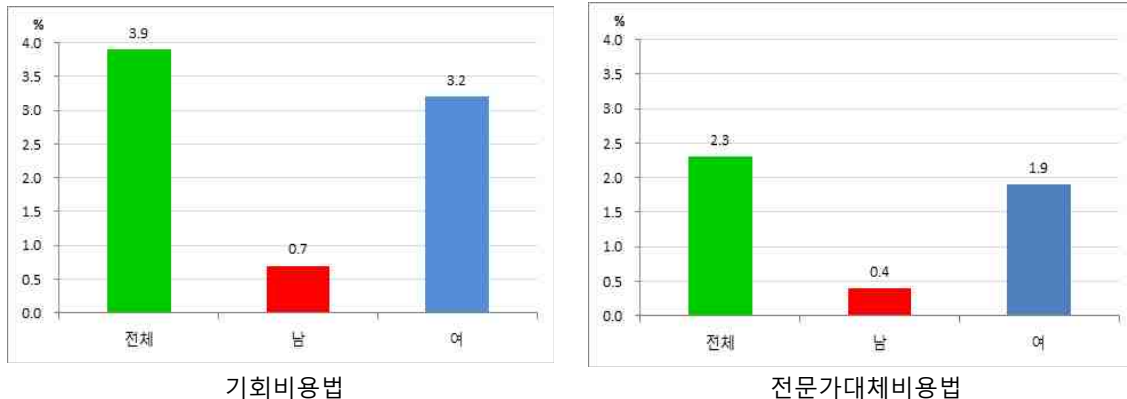
(단위 : 만 원, 십억 원)

구분	1인당		전체인구	
	기회비용법	전문가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전문가대체비용법
남	342	199	5,616	3,271
여	1,045	626	26,342	15,774

○ 고령층 전체가 한 해 동안 수행한 가정 내 가사활동의 규모는 GDP 대비 2.3~3.9%의 비중을 차지함

-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은 1.9~3.2%로 남성 0.4~0.7%에 비해 약 5배 큰 규모임
- 즉, 고령층 여성이 가정 내 생산적 활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고령층 가사활동의 GDP 대비 비중 >



□ 사회정책적 함의

○ 향후 고령층의 인구 증가 및 건강수준 향상으로 고령층의 생산적 활동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년연장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적 활동 증가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와 가사활동 등 가정 내에서의 생산적 활동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임
- 현재 우리나라 고령층은 서구 유럽과 비교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이 적고, 남성의 가사활동 참여시간이 여성에 비해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서구 유럽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고령층의 가정 내 생산적 활동은 고령화시대 사회적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 고령층은 은퇴 이후 노동소득 없이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 연금(public pension)과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에 주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강함
- 현재 고령층은 노후소득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정부의 기초연금, 자녀 및 친지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음

- 그러나 고령층은 가정 내 가사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 여성의 가사활동 참여규모는 상당한 수준으로 사회적 일자리로의 전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음
 - 여성 고령층의 가족보살피기는 정책적으로 저출산시대 육아 부담 해소 및 고령화시대 간병 인력 양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가사활동에 대한 화폐적 규모 제시로 인해 국민들이 고령층의 생산적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도입단계인 정부의 노-노 케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고령층의 가사활동은 사회적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 있을 것임
-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성장과 정부의 재정부담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 노(老)-노(老) 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것을 의미함. 건강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고령층 내의 가사활동의 규모는 성별에 따른 격차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다른 국가에 비해 남성 고령층의 가사활동 참여가 낮은 편인데, 이러한 경향은 연령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 생애에 걸쳐 성차별적인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남성 고령층의 가사활동 참여 제고는 노후생활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참고자료

- 통계청, 200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 노동부, 200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남희(02-380-8357, nhui@kihasa.re.kr)

□ 세심록(洗心錄)

○ 느슨한 대가족

작년 노인인구가 12.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이미 10년 이상이 되어 우리나라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고령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노인인구가 25%로 세계최고 수준이며, 이에 걸맞게 오래전부터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쳐 '노인'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무라타 히로유키의 저서 '그레이마켓이 온다'에서는 노인 시장(그레이마켓)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레이마켓의 주인공들이 고자산 '빈곤층'이라고 하지만, 3불(불안, 불만, 불편)이 해결될 수 있다면 기꺼이 지갑을 열기도 한다. 그럼에도 매스 마케팅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마이크로 시장이다. 하지만 노인을 중심으로 한 '느슨한 대가족'이 많아지면서 그레이마켓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무라타 히로유키는 먼저 지방을 중심으로 부모-자녀-손주 3대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가족으로 회귀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고 있다. 산업공동화, 경기침체 등에 의한 일자리 감소와 소득저하 등 젊은 세대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다시 대가족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차로 30분내 거리에서 따로 거주하는 변형된 대가족 형태인 느슨한 대가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세대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부모로부터 육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세대는 심리적 위안과 위급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두 세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형태이면서, 만남 횟수는 줄지만 만남의 밀도는 오히려 커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느슨한 대가족'은 노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노인의 개인적 욕구뿐만 아니라 '가족'의 욕구까지 그레이마켓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느슨한 대가족'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에서 주인공은 단연코 노인이었다. 하지만 가깝지만 언제든지 쉽게 멀어질 수 있는 '느슨한 대가족'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그리고 오랫동안 '느슨한 대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인공의 역할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인생이란 겸손을 배우는 긴 여정이다.

- 제임스 M. 배리(1860-1937) : <피터펜>을 쓴 영국의 소설가

□ 복 리뷰 :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⁴⁾

이언 브레머는 컬럼비아 대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위기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회장으로, 월스트리트를 비롯해 세계 금융권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국제정치리크스 인덱스(DESEX)를 도이치 은행과 합작으로 개발한 바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J커브’ 등이 있음.

○ 글로벌 리더가 사라진 세계, G제로

- 국가 부채에 발목 잡힌 미국,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는 유럽과 일본, 준비되지 않은 신흥국가들, 한목소리로 협력하지 못하는 국제기구들 모두 리더의 역할을 방기

○ G제로가 불러올 새로운 분쟁의 씨앗들

- **(현실 전쟁터와 사이버 전쟁터)**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충돌이 격화되는 한편, 사이버 전쟁의 위험성도 크게 증가할 전망
- **(무역과 비즈니스, 글로벌 시장에서의 충돌)**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 모두 보호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무역장벽, 외환시장 개입, 규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
- **(달러의 독점에 대한 도전)** 달러는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공공재 역할을 해왔으나 점점 더 심각해지는 미국의 채무위기로 신뢰도가 하락
- **(첨단기술, 인터넷, 정보를 둘러싼 갈등)** 새로운 국제표준을 둘러싸고 선진국에 대한 신흥국들의 도전이 강화
- **(가장 큰 비극,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 기후 문제, 식량 전쟁, 물 부족 등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 G제로 시대의 위기와 기회, 승자와 패자

- **승자들:** 중심축 국가(브라질, 터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몽골, 캐나다)와 비호받는 말썽 국가(북한, 이란, 미얀마)
- **패자들:** 심판(NATO, IMF, 세계은행, 국제인권감시기구, 국경없는 의사회)과 노출국가(일본, 대만, 이스라엘)
- **승자이자 패자:** 갈림길에 선 국가들(러시아, 미국, 중국)

○ 세계 경제 질서를 변화시킬 5가지 시나리오

- **G2(미-중 협력, 다른 나라들의 힘이 약한 상태), 조화(미-중 협력, 다른 나라들의 힘이 강한 상태), 냉전 2.0(미-중 대립, 다른 나라들의 힘이 약한 상태), 분열(미-중 대립, 다른 나라들의 힘이 약한 상태)**
- **시나리오 X(리더십의 위축, 권력의 분열로 통제가 불가능의 최악의 시나리오)**

4) 이언 브레머 지음, 박세연 옮김, “리더가 사라진 세계”, 다산북스, 2014.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잠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